

한화그룹,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한화그룹이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자격증 취득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올바른 경제가치관 확립을 위한 아동·청소년 대상의 경제교육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화그룹은 어린이재단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열악한 환경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자립을 통한 올바른 사회적응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의 실업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는 고교졸업을 앞둔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IT, 미용, 기술, 기사, 기능사 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해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키로 했으며 겨울에는 비전캠프를 열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미래의 꿈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동기부여와 함께 꿈을 이루기 위한 로드맵을 그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시설이나 오지학교 등 경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도 지원키로 했다.

<화학저널 2009/08/27>